

TiO₂, 시장전망 불투명 “답답하다”

2002년 4월 판매량 14.1% 감소 ... 경기 회복되면 성장 가능성 기대

미국의 TiO₂(Titanium Dioxide) 생산기업들이 재고를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고 내수가격도 변동하지 않고 있지만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TiO₂ 시장이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로화 강세로 유럽가격은 높은 반면 수요는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다.

컨설팅기업 IBMA에 따르면, TiO₂ 시장은 경기회복과 가격안정에 따라 성장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되면 2003년 하반기에는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2002년 1/4분기 강세를 보이던 TiO₂ 판매량은 안료산업이 위축됨에 따라 2003년 4월 1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고는 47일 정도로 유지되고 있어 적당하다고 파악된다.

미국 내수가격은 약보합세를 나타냈다.

유럽가격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으나 유로화 기준으로 2003년 초 상승하기 시작해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달러를 기준으로 보면 유럽가격은 미국가격보다 파운드당 10센트 높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과 유럽 판매가격은 각각 파운드당 80센트, 90센트대를 형성하고 있다.

2003년 유럽 수요량은 8-12% 감소했지만 중국의 수요신장률은 2자리수를 기록했고 한국과 타이완에서도 수요량이 급증했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 주도하는 남미 시장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Millennium Chemicals에 따르면, 페인트 원료 공급기업들이 원료가격 상승을 유도하고 있어 페인트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료 공급기업들은 오랫동안 마진이 적어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페인트 메이커들은 원료 코스트 상승도 문제지만 수요감소를 더 우려하고 있고 몇몇 페인트 생산기업들은 이미 적자경고를 발표했다. 앞으로 적자 기업들이 더 추가될 전망이다.

2003년 TiO₂ 시장에 아직 희망적인 전망도 제기되고 있지만 2002년과 마찬가지로 침체국면으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2003년 상반기의 GDP 성장률이 2% 이하를 기록하면서 하반기에도 3% 정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3/07/24>